

“종교인답게,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7대 종교 신도 ‘답게 살겠습니다’
7대 행동강령 ‘범종교운동’ 선포

불교, 천주교, 개신교 등 국내 7대 종단 소속 신도들이 함께 평화와 화합의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범종교인 운동을 펼친다. 7대 종단 협의체인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대표회장 자승스님) 소속 신도들은 지난 2월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범종교인 운동 ‘답게 살겠습니다’ 선포식을 갖고 신도 중심 협의체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알렸다.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은 ‘종교인답게’ ‘사람답게’ 등 7대 행동강령을 가지고 이웃 종교 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건강하고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 실천 운동이다. 불교와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한국민족종교 등 7대 종단을 대표하는 신도 단체가 주축이 돼 신도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 ‘나’ ‘사회’ ‘가정’ 등 각자의 위치에서 자성과 참회운동을 전개하며 사회 갈등을 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해 나갈 예정이다.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을 권고한 권길중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 체협의회장은 환영말씀에서 “너에게 해가 되는 것은 남에게도 하지말라”는 불교의 가르침 등 각 종교의 가르침에 따라 올바른 사회행위를 확산할 것을 만천하에 선포한다”고 말했다.

이날 임장수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회장은 선언문에서 “‘답게 사는 삶’ 실천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회적 책무를 온전히 수행하고 현

신행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도 단체 대표들은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올바른 가치관으로 이웃과 더불어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사랑과 희생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데 앞장서는 가정의 구성원답게 살겠습니다 △진리의 근원인 믿음으로 존만한 종교인답게 살겠습니다 △정직과 성실로 맡겨진 일을 온전히 수행하는 직업인답게 살겠습니다 △사회가 요청하는 공공선을 위해 봉사하는 사회인답게 살겠습니다 △국가와 민족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국민답게 살겠습니다 △하나뿐인 지구를 살리고 인류 평화를 위해 수고하는 지구인답게 살겠습니다 등 7개 행동강령을 각각 낭독했다.

KCRP 각 종단 대표들의 격려사도 이어졌다. 대표회장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종교인들 스스로 성찰하고 각자 위치에서 ‘답게 살겠다’고 다짐해 실천수범한 것은 시대를 앞어가는 현실적 실천이자 의미있는 일”이라며 “지금까지 종교간 대화 협력이 성직자 중심으로 이어졌다면 오늘 운동이 평신도들이 일선에 앞장섬으로써 한 단계 발돋움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7대 신도 단체 협의체는 오는 4월30일 오전11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결의대회와 출범식을 갖고 운동 방향과 과제를 발표한다.

허정철 기자 hjc@ibulgyo.com
이경민 수습기자 kylee@ibulgyo.com



지난 2월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범종교인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 선포식 후 7대 종단 대표들과 신도 단체 대표들이 손을 맞잡고 실천을 다짐했다.

“불교, 고전 말고 새로운 담론 제시해야”

60회 불교평론 열린논단
‘깨달음 지상주의’ 지적
조명제 교수, 대안 주문



이라고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조명제 신라대 교수(사진)는 ‘깨달음 지상주의’에 대한 폐단을 지적하고 불교학 또한 현 실상황에서 무력한 존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본래 선(禪)은 수행이라는 좁은 틀이 아니라 의례와 문화, 사회적 역할 등 삶의 총체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다”며 “그런데 선의 의미를 수행에만 집중하다보니 지나치게 초월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선이 불교 이외의 학파나 학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것도 불교 교학 이전에 인간 삶의 존재 방식과 ‘지금 이 자리’를 문제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교수는 21세기 현시대 불교가 적절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기혁신이 필요하

다고 주장했다. “불교는 새로운 경전을 생성하고 사상가와 운동을 펼쳐 전통을 쇄신해 왔다”며 “고전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현재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사회과학 등 새로운 지식담론을 수용한 불교적 담론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들도 철저한 시대적 고민과 현대인들의 삶에 구체적인 규범과 윤리를 내놓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형조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스님들의 화두는 높고 전문 학자들의 불교에 대해 일반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없다고 하는데 이는 3부 대중의 동상이몽”이라며 “대중의 소통을 위해서는 일상 규범 등 삶에 가까운 구체적인 원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9일에는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가 ‘포교 정말 잘하고 있는가’를, 4월16일에는 조성택 고려대 교수가 ‘사회적 역할, 정말 잘하고 있는가’를 주제로 각각 발제한다.

홍다영 기자

“일선포교사 1만명으로 늘려 달라”

총무원장 자승스님
포교사단에 ‘당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2월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포교사단 신년하례를 통해 포교일선에서 활약하는 포교사를 1만명으로 늘려달라고 당부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광명회 포교사단장으로부터 “포교사단은 미국 LA지역단을 포함해 12개 지역단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1만명 넘는 포교사 가운데 4400여 명이 포교일

선에서 전범에 나서고 있다”고 보고 받았다. 이에 총무원장 스님은 “현제 1만명 넘게 포교사가 배출됐지만 실제 활동하는 포교사가 4000여 명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쉬고 있는 포교사를 독려해 내년 신년하례에는 1만명이 넘는 포교사가 포교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보고할 수 있게 모두 다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포교사단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8차례 수계실천대법회를 오는 9월5, 6일 제3교구본사 신흥사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박인택 기자 parkintak@ibulgyo.com



서울노인복지센터 200여 어르신 봉사자들은 선서를 통해 더욱 활발한 활동을 다짐했다.

200여 명 노인자원봉사단 출범

서울노인복지센터
9개 봉사회 구성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희우스님)는 지난 2월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2층 전통문화공연장에서 노인자원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은 서울노인복지센터 내 다양한 봉사회를 ‘봉사단’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로 모아 노인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의 반영이다. 노인자원봉사단은 프로그램활동지원, 안내, 상담, 월예, 문화예호, 탐골사랑, 외국어, 탐골어르신모니터링, 공연봉사회 등 모두 9개의 봉사회로 구성됐다.

서울노인복지센터는 지난 2002년 개관 첫 해부터 노인봉사회를 운영해왔다. 해를 거듭하면서 봉사회 수는 늘어났고, 2014년에는 하루 평균 35명의 봉사자가 활동해 연인원 1만786명이 3만9618시간을 봉사에 매진했다. 이날 참석한 200여 명의 노인봉사자들은 선서를 통해 더욱 활발한 나눔실천을 다짐했다. 관장 희우스님은 “봉사단은 ‘선배시민’으로서 솔선수범하는 어르신들이 되는 무대”라며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자신에게 행복을 더하고 욕심을 빼면서 인생에 박수칠 수 있는 즐거운 삶을 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하영 기자 hykim@ibulgyo.com

해인총림 대중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이 절실합니다

－ 원각 스님 추천위 측의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에 대한 입장 －

수행은 뒷전으로 하고 평생 종단 정치에만 매달려 곳곳에서 갈등을 일으켜 온 스님들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조계종 원로 대중사의 위(威)를 제멋대로 훼손하는 추태를 확인했습니다. 방장 어른을 여범하게 추대하기보다 ‘주지 정책’에만 골몰하고 있는 스님들의 고민이 느껴졌습니다. 해인총림을 욕보이게 하려는 술수를 잘 보았습니다.

우리 학산대원 대중사 추천위에서는 대응할 가치도 없는 원각 스님 측의 허위사실 유포와 흑색선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조계종과 해인총림 전체를 진흙탕으로 만들고 있는 스님들의 참회를 촉구합니다.

특히 대원 대중사님과 관련해 제기한 공주 학림사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학림사는 대원 대중사님이 평생 원력을 세워 일군 도량입니다. 전국의 수많은 납자(納子)와 재가자들이 찾아와 대중사님의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종단 등록문제는 이미 조계종 각급 기관을 통해 검증이 끝난 사항입니다.

종단 등록 전 ‘학림선원(학림사)’은 (재)대각회 등록사찰(1987년 2월 6일)이었고, 이후 불사과정에서 매입한 토지 등은 불사가 마무리된 뒤 (재)대각회나 조계종에 등록하라는 (재)대각회 원로스님들의 조언에 따라 공주시청의 허가를 받은 임의단체인 ‘대각회 학림사’라는 이름으로 불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조계종 등록(2014년 11월 5일)을 완료하였습니다. 종현종법 위반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이 과정은 조계종뿐만 아니라 기자회견을 한 스님들도 자세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대, 과장, 소급하여 원로 대중사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원택 스님을 비롯한 여러 스님들에 대한 주장도 거짓입니다. 원택 스님은 한국 간화선종 진작과 성철 대중사 사상 홍보를 위해 평생 동안 노력해왔습니다. 해인총림의 각종 대소사에도 관심을 갖고 힘을 보태왔고, 지금도 성철 대중사 추모사업에 진력하고 있음을 모든 종도들이 알고 있습니다. 선각 스님 역시 새로운 방장스님이 추대되면 선원장 소임에서 물러나 법전 대중사 선양사업과 개인 정진에만 전력을 기울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학산대원 대중사 추천위는 해인총림 방장스님의 여법한 추대를 호소합니다. 어른들의 산중화합 전통을 깨고 선거를 획책하는 스님들의 대오각성을 요구합니다.

근래 들어 조계종에서는 민주주의라는 미명 아래 선거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중앙종회의원, 교구본사 주지 등을 선출하는데 있어 아무 거리낌 없이 선거가 이뤄집니다. 이렇다보니 화합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당선을 쟁취하는데 몰두합니다. 산중 전통은 산산이 부서지고 있습니다.

한국불교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고 있는 해인총림에서까지 선거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원각 스님 추천위 스님들은 탐욕과 어리석음을 버리고 해인총림의 명성과 자부심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지금이라도 해인총림 방장스님의 추대에 동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인총림 대중 여러분들의 지혜롭고 현명한 판단이 절실합니다.

불기 2559(2015)년 2월 27일

제9대 해인총림 방장후보 학산대원 대중사 추천위원회 공동추천위원장 세민 · 종진 · 원웅 합장